담양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분야별 3년 이상 경력
선발시 오는 12월까지 1일 5시간 주5일 근로

담양군이 주 일자리에서 은퇴한 신중년 전문 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담양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대상자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1950~1970년 출생자)의 미취업자 중 전문 분야별 경력이 3년 이상인 경력자로 현재 10명의 군민이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민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퇴직한 한 참여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독서지도와 생각나누기 등 아동 돌봄 활동을, 사업체 운영 경력을 가진 참여자는 청년 창업자나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업 참여자들은 농업, 아동·어르신 돌봄, 경영컨설팅 분야에서 본인의 경력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한다.

참여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하면 되며, 선발 시 2020년 12월까지 1일 5시간(주 5일) 근로를 하며 자신의 전문경력을 지역민들과 나누게 된다.

사업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수해피해로 어려운 시기에 신중년 퇴직자들이 지역민들과 함께하며 힘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험을 나눌 많은 신중년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침수지역 이재민 장티푸스 무료 예방접종

보건의료원 및 문척 · 토지 · 마산보건지소에서 1049명 지원

구례군은 침수 지역 이재민의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8월 9일부터 보건의료원 및 문척·토지·마산보건지소에서 장티푸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용된 장티푸스 예방접종 백신은 전남 14개 시군의 지원 협조로 침수 다음날인 8월 9일부터 21일까지 3791부대 3대대 수해복구 지원 장병, 자원봉사자, 이재민 등 1,049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장티푸스균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며 1~2주의 잠복기 후 급성 전신발열이나 두통,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해 발생지역에서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물은 끓여 먹으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하며,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광주 거주 초등교사 확진

선별진료소 4곳 설치 방역 · 검사

접촉자 15명

화순군은 24일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화순초교 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학교 등에 대한 방역과 함께 교사·학생 대상 긴급 전수검사에 나섰다.

화순군은 이날 이용대체육관과 화순초교에 2곳씩 4곳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접촉자 15명을 포함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검진했다.

화순초교에는 903명이 재학 중이며 교직원은 93명이다.

방역당국은 검진 집중을 막기 위해 1·2학년 오전 11시~오후 1시, 3·4학년 오후 1~3시, 5·6학년은 오후 3~5시로 시간대를 분산했다.

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화순초교 학생이 아닌 관내 학원 수강생도 검진받도록 안내했다.

해당 교사(광주 282번)는 지난 21일 발열 등 증세로 검진을 받은 뒤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화순지역 접촉자는 15명으로 교사 11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이다. 접촉 학생 2명의 학부모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벌였다.

화순군 관계자는 "긴급 방역소독과 전수검사, 밀접접촉자 자격격리 등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화순군은 능주면 확진자 3명과 접촉한 179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

긴 장마 후 돌발해충 기승 … 방제단 확대 편성

담양군이 최근 긴 장마 후 시작된 폭염으로 미국흰불나방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돌발해충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인해 미국흰불나방 등 각종 병해충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지속돼 시급한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흰불나방은 버즘나무, 벚나무류 등 약 200여 종의 활엽수 잎을 갉아 먹고 가지만 남겨 가로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방해해 수세를 약하게 한다.

현재 미국흰불나방은 산림은 물론 가로수, 하천변 등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를 주고 있어 군에서는 자체 방제단을 2개조에서 4개조로 확대 편성, 유동인구가 적은 이른 아침 시간대에 영산강 등 주요 5개 하천과 국도, 지방도 등 10개 등에 집중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채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발해충이 발생하여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인기몰이'

상반기 1일 평균 1000명 방문… 매출 68% 급상승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독보적인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

24일 장성군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직매장을 찾은 소비자는 1일 평균 1000명 이상으로 꾸준했다. 이는 매출 실적으로 이어져, 농축산물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68% 이상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 남면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협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장성지역 최초의 지역 농산물 전문 직거래 매장이다. 지난 2017년 8월에 임시 개장한 이래 연매출이 '수직상승' 중이다. 첫해 10억원을 시작으로 이듬해 35억원, 작년에는 4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장성군 지역 농산물의 인기를 실감하게 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시기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외식보다는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정식을 선호하는 최근의 소비 추세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청정지역이면서도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의 입지 여건이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어모은 요인으로 지목된다.

장성군은 이같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올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 총사업비 12억원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 증·개축 지원을 결정했다. 군은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농산물 진열 면적을 60% 이상 확대하고, 연접 필지에 저장고 및 작업장을 신축해 운영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 농가 레스토랑을 새롭게 지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오늘날 장성 로컬푸드의 인기는 우리군과 지역농협이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오랫동안 협업해온 '장성 푸드플랜'의 결과물"이라며 "지역농협은 물론 상무대와 교육청, 민간기업, 지역민 등 모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푸드플랜의 중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임시 개장
첫해 10억→지난해 44억
연매출 수직상승 '인기'

'푸드플랜'은 먹거리에 관한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계획하는 종합 전략이다. 소비자의 식탁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앞선 5월, 장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0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공공급식센터 건립 ▲대도시권 직매장 건립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등 푸드플랜 관련 11개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2024년까지 5년간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했다.